

세계 천연 섬유의 해와 천연 섬유의 매력

UN에서는 2005년에 2009년을 세계 천연 섬유의 해로 정하였다. UN 식량 농업 기구(食糧 農業 機構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이탈리아(Italia)의 로마(Rome)에 본부가 있으며, 세계 천연 섬유의 해 사업을 관장하는 리드 에이전시(lead agency)로서 2008년 12월 9일에는 식량 불안(食糧 不安) 현상(現狀)을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천연 섬유의 해가 사실상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1년간 전 세계(全世界)의 여러 가지 이벤트나 회의를 통하여, 천연 섬유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모션 활동(promotion 活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연 섬유 진품(眞品)의 장점을 다시 살펴보는 1년의 출발이기도 하다.

◎ 전 세계에서 천연 섬유의 수요 진흥 위한 프로모션 추진

세계 천연 섬유의 해는 FAO가 제안하여 2006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FAO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합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셰어(share : 占有率)가 크게 떨어진 면, 울(wool), 마, 견, 기타 식물 원료 섬유 등의 천연 섬유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천연 섬유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하여 잘 이해토록 하고, 다양한 천연 섬유 산업끼리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2009년에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다. 1월 26일에는 공식 런치(launch : 始務會)가 있었고, 1월 22, 23일에는 인도(India) 뭄바이(Mumbai : 印度의 中西 海岸의 港灣 都市)에서 전 천연 섬유 회의(全 天然 纖維 會議)가 열렸고, 6월 16~18일에는 국제 천연 섬유 회의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Frankfurt)에서 개최되었다. 10월 6~8일에는 FAO의 ‘경질 섬유(硬質 纖維 : 주트(jute), 케나프(kenaf) 및 동질 섬유)의 정부간(政府間) 모임’이 필리핀(Philippines)의 마닐라(Manil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외에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섬유 협회, 뉴질랜드(New Zealand) 섬유 협회, 구주(歐洲) 마(麻) 공업 협회, 국제 양모 섬유 기구, 국제 면화 자문 위원회 등 전 세계의 섬유 관련 단체의 회합에서도 세계 천연 섬유의 해가 의제로 될 예정이다.

세계 천연 섬유의 해의 또 하나의 목적은 농업을 진흥하는 일이다. 이 점에 관하여 FAO는 “천연 섬유 원료는, 특히 발전도상국의 농업 종사자에게는 큰 수입원이며, 국가 레벨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천연 섬유 수요를 진흥하여 발전도상국의 농민 소득을 올리고, 또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세계 천연 섬유의 해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61/189 천연 섬유의 해 2009” – 2006년 12월 20일 제 83회 본회의 내용

UN은 2005년 11월 25일에 채택된 UN 식량 농업 기구(FAO) 총회 결의 3/2005를 명심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종다양한 천연 섬유는, 농민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으므로, 식량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고 빈곤을 완전히 없애어, 결과적으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 2009년 9월에 UN 밀레니엄 서밋에서 채택한 세계적인 빈곤, 기아 문제를 비롯한 UN 밀레니엄 선언)를 달성하는 공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2009년을 세계 천연 섬유의 해임을 정식으로 공표하기로 결정한다.
2. FAO에 대하여, 정부, 지역, 국제기관, 비정부 조직(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민간 섹터 및 UN 시스템의 관련 기관과의 제휴로 2009년의 기념행사를 빨리 추진하도록 초청함과 동시에, FAO에 대하여 이러한 관련으로 추진 상황을 총회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한다.
3. 정부 및 관련 지역이나 국제기관에 대하여 2009년에 자발적으로 공헌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하도록 호소한다.
4. NGO와 민간 섹터에 대하여, 2009년의 자발적인 공헌과 지원을 호소한다.
5. 모든 정부, UN 시스템 및 기타 모든 주체에 대하여 이들 천연 산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재촉한다.

◎ 화석 자원의 한도로, 섬유 수요는 결국 천연 섬유로

환경 문제가 클로즈 업(close up)되고 있는 현재,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세계의 섬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도가 있는 화석 자원을 원료로 하는 합성 섬유로 꾸러나가는 원리상 불가능하다. 역시 천연 섬유가 나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천연 섬유의 해와 천연 섬유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천연 섬유의 ‘진품’의 가치를 찾아, 여기서는 ‘천연 섬유의 매력 방적편’에서 소재 메이커의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이들이 천연 섬유의 진품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 천연 면섬유의 매력

- 후지보 텍스타일 - 가공의 타깃은 고급 존

후지보 텍스타일은, 연속 실켓 면사(連續 silket 綿絲) ‘렌실’로 대표되는 머서라이즈 기술(mercerize 技術)을 장기로 내놓고 있다. 이 가공 기술을 살려, 면이나 마(麻)의 캐주얼감(casual 感)과 광택의 두 가지 특성에 의한 고급감을 잘 살리는 것이 동사의 포인트이다. ‘렌실’은 수출 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계속 호평을 받고 있는데, 다양성(variation)도 늘리고 있다.

얼룩실이나 변수가 다른 실의 교연으로 광택 뿐 아니라 캐주얼감이 있는 새로운 느낌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면 캐시미어(cashmere) 혼방사도 잘 팔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텍스타일은 대체로 시황이 나쁜 속에서도 기자 면(giza cotton)의 정방 교연사(精紡 交燃絲)를 사용한 선염지(先染地)나 후염지(後染地)의 별도 주문 제품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획·제안형(企劃·提案型)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사의 패션 텍스타일 센터(F.T.C)의 기획력과 산지내의 도매상 기능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고야마(小山) 공장의 직물 가공과 와카야마(和歌山) 공장의 니트 가공을 짜 맞추는 것이 동사의 강점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한때 판매하던 미이용면(未利用綿 : 落綿) · 리넨(linen) 혼장 소재를 다시 상품화하고 있다. 동사는 면 50%·리넨 50%의 40수 단사 ‘레니르렐’과 이를 사용하여 짠 직물과 편포 ‘란라일’을 판매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생산 공장에서 생기는 낙면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실과 편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섬유가 있었지만, 남아 있는 것은 언제나 면, 마, 울 등의 천연 섬유들이며, 특히 면은 하이브리드화(hybrid化)하고 있어, 환경 부하를 생각하면 가장 좋은 섬유라고 믿고 있다.”고 텍스타일 부장은 말하고 있다.

· 다이와보 노이 – 천연 면섬유의 특성 살린 ‘에코 릴리스’ 호평 받아

다이와보 그룹은, 합성 섬유 등 다채로운 소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상(祖上)으로부터 해온 사업 즉 조업으로 되어 있는 면방적은 다이와보 노이가 담당하고 있다. 면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unique) 소재가 동사의 특징이다.

2008년에는 ‘에코 릴리스(Echo-relelase)’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후가공이 아니고, 면의 셀룰로스가 원래 갖고 있는 흡수성과 흡유성을 활용한 새로운 타입의 피지 오염 릴리스(皮脂 汚染 release) 소재이다. 셀룰로스 섬유는 수분과 유분을 모두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 수분과 유분을 비교하면, 수분을 더 잘 흡수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피지를 흡수한 상태에서 물로 씻으면, 수분을 흡수하면서 유분이 밀려 릴리스(release)하는 기능이 드러난다.

코트지(coat地) ‘벤타일(ventile)’은 면 100%이면서도 투습 방수성(透濕 防水性)이 있다. 베이스의 고밀도 직물은, 습윤함으로서 더욱 실과 실 사이의 생지눈(生地目)이 메어져, 물방울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짜임새가 된다. 이것도 면의 특성을 살린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요 근래는 코트지로 경량에 얇은 천의 트렌드로 되어 있어, 실을 세 번수로 하는 버전(version : 변화)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이실(紙絲) ‘오조(OJO)’도 천연 섬유의 하나이다. 프리미어 비전에는 종이

실과 면의 교직이나 교편 생지를 출품하여 주목을 끌었다. 구주(歐洲)는 일본보다도 환경 의식이 더 높아 취급이 어려운 소재이지만, 이탈리아 등에서 문의가 많다.

“천연 섬유는 소재 특성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면이 좋은 것을 살린 소재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